

통권 제6호 93.7

월간항공우주산업동향 통권제6호 매월15일발행 / 공보처등록 라-6124 1993.7.8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발행

항공우주산업동향

1993.7.

사단
법인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목 차

I. 정부관련시책

□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개정	1
□ 위성통신법제정(안) 입법예고 -체신부공고제1993-84호 (1993.6.28)-	4
□ 외국인 투자, '97년까지 133업종 추가개방	6
□ 기술개발지원사업 지원현황	6
□ 상공자원부, 95년계 기술대학 설립계획	11
□ 신경제5개년계획에 의한 관세감면제도 개편방안	12

II. 협회 및 회원사 동정

□ 싱가포르 에어쇼 전시참여 준비회의결과	13
□ 한국로스트왁스공업, 공업진흥청장상 수상	14
□ 현대항공산업, 노드롭사에서 'Key Plan Award' 받음	14
□ 기계연구원, 항공기엔진 터빈용 합금기술 개발	15

III. 국내항공우주산업동향

□ 한·중 우주기술 협력 추진	15
□ 첨단항공기 소개서 발간	16
□ 상업 위성통신서비스 내달 개시	16
□ 한국통신 2천1년까지 위성통신연구소 등 신설	18
□ 항공기엔진이용 발전방식 도입 추진	19
□ 한·러 군수산업민수화 협력 본격	19

IV. 해외항공우주산업동향

□ 북미지역의 군수분야 항공우주산업전망	21
□ Boeing, 수퍼점보기 개발 연구에 일본 참여요청 거절	30
□ 유럽의 군용 수송기 EUROFLA 계획	30
□ SIKORSKY, S-92 헬리콥터 개발 파트너 물색	31
□ CASA-3000, 1단계 기체 테스트 완료	32
□ 파키스탄, 터키제 Black Hawk 도입 희망	33
□ F-18C/D 판매현황	33
□ 미-EC간 항공사 보조금 지원에 신경전	34
□ 아시아권 항공사들, 대미 항공협정 재협상 촉구	35
□ 미, 우주정거장 계속 추진	35
□ 미, 러시아 국영사 무역제재 단행	36
□ Lockheed, 대만에 F-16 정비공장 설립	37
□ 미 국방부 레이저무기 우주배치 보존 촉구	37
□ 보잉사, 구형 B-747기 대대적 보수 착수	38
□ 보잉사, 소형 여객기 개량계획	39
□ 말, 러시아로부터 MG-29 도입	39
□ 인도, 항공우주기술 도입위해 관리 2명 러시아 파견	39
□ 러, 아에로플로트항공사 항공기 대체구입 시급	40
□ 러, 헝가리 8억달러 채무 전투기로 일부 변제키로	40
□ 러, 구미와 항공기 사업제휴 활발	41
□ 중국, 3년동안 항공산업 집중육성	43
□ 중-영 신공항회담 합의점 못찾고 끝나	43
□ ANA B767를 주력기로 선정	44
□ 영국 BAe-GE사 합병 준비회담 개시	44

V. 참고자료

- '93년도 상반기 수입추천 및 관세감면 실적45
- 항공우주관련 공과대학 졸업예정자 현황47

VI. 할 립

- 항공기 및 동 부분품(방위산업용 포함)의 수입추천요령48
- 항공기 및 그 부분품 생산용 원료, 기체에 대한 국산공급곤란 확인요령53
- 전경련, '최고경영자 유럽지역 경영연수' 예정57

I. 정부관련시책

□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개정

- 상공자원부는 '93. 7. 12일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교통부, 체신부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동법 개정(안)의 입법예고와 금년 9월 정기 국회에 상정할 예정
- 상공자원부가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을 개정 추진하게 된 배경은
 - 현행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이 1987년 제정 되었으나, 그동안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산업은 정부의 육성외지 부족과 재정지원 부재로 인하여 유치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는 바, 기술선진국으로의 진입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거쳐야 할 최첨단산업인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에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요청되고 있고
 - '93. 3. 12 대통령의 항공업계 방문시 차세대 성장산업인 항공우주산업을 신경제5개년 계획에 포함하여 적극 육성할 것을 지시한 바 있으며
 - 성장기업인 기계 및 전자부문에서도 저성장 부문이 등장하므로 고부가가치의 최첨단산업인 항공우주산업이 이를 대체하여 21세기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선도함으로써 국내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할 시기임과
 - 국내의 항공우주시장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바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여 동 수요를 우리의 제품으로 어느정도 충족시키므로써 국제수지 개선 뿐만 아니라 항공우주기술의 축적 및 항공우주기술의 타산업에 파급효과 유발과 자주 국방의 실현이 가능할 것임
 - 그러나 우리나라가 '90년대에 항공우주산업의 육성기회를 상실하는 경우 결과적으로는 선진국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므로 동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동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항공우주산업의 범위 확대 (안 제2조 제1호)
 - 지상지원설비는 항공기 및 우주비행체 이용을 위한 전용장비이므로 이를 항공우주산업의 범위에 포함
- 정부의 종합시책 수립 및 기술 개발을 주요 국책사업으로 추진(안 제3조)
 -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하여 정부의 종합계획 수립 및 기술개발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지원함
-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등 위원회 기능의 능률화
 -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경제기획원장관으로 하향조정 (안 제13조 제2항)
 -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실무위원회 위원장을 상공자원부장관에서 상공자원부차관으로 하향조정(안 제13조 제4항)
- 전문연구기관의 체제정비(안 제14조)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해 설립토록 되어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설립근거를 본법에 두는 것으로 함
 - 이에따라 현재의 한국항공우주연구소는 과기처에서 상공자원부 소속으로 이관코자 함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의 설립근거신설 (안 제15조)
 - 공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의 설립근거를 본법에 규정함
- 항공우주산업의 보호육성조항 신설
 - 항공우주 관련 품목에 수입관리를 위하여 수입감독과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 18조)
 - 관계부처에서 항공기 등 도입 (임차포함) 인·허가시 인가 전에 상공자원부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함 (안 제19조)

- 항공우주산업육성기금 조성 및 지원근거 신설
 - 항공우주산업육성기금 설치근거 마련 (안 제20조)
 - 기금조성 재원을 정부 외에 수익자 등의 부담근거 마련 (안 제21조)
 - ① 정부 또는 정부이외 자의 출연금
 - ② 기금으로 운영되는 수익금
 - ③ 항공기 및 우주비행체 수입시 부과되는 수수료
 - ④ 국내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수수료
 - ⑤ 인공위성 이용자에 부과되는 수수료등
 - 기금은 상공자원부장관이 운용 관리하여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2조)
 - 기금의 사용목적 제한 (안 제23조)
 - ① 국내개발 및 국제공동개발사업의 연구
 - ② 항공우주 핵심기술 개발
 - ③ 생산 및 시험설비 등

- 생산증명체제의 확립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생산방법의 승인과 생산증명으로 변경)
 - 항공기, 우주비행체, 지상지원설비 등을 생산하고자 할 때는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생산증명을 발급함(안 제25조 내지 제26조)
 - 생산방법 승인 및 생산증명업무를 수행토록 전문검사기관 지정(안 제27조)

- 위임, 위탁업무에 대한 지휘감독 조항 신설(안 제31조)
 - 위임 및 위탁업무에 대하여 위임 위탁기관을 지휘.감독하도록 함

- 벌칙 상향조정 및 처벌사유 추가 (안 제33조)
 - 법규정 준수 및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벌칙을 상향조정하고 기금신설 등에 따라 이에 대한 위반자의 처벌규정 추가

○ 자료: 상공자원부 항공방위산업과

□ 위성통신법제정(안) 입법예고 -체신부공고제1993-84호 (1993.6.28)-

위성통신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법령안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이유:

- 다가오는 위성통신시대에 대비하여 위성통신설비의 설치·운용 및 이용에 관한 기본제도를 마련하고, 위성통신·방송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서비스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운영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립하여, 위성통신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급속히 변모하는 기술발전 추세 및 다양한 위성통신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체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위성통신 및 위성통신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위성통신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위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궤도 및 전파의 혼신등에 관하여 관련국가등과 조정을 거친 후 위성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확인 받아 설치하도록 하며 위성설치후 운용개시예정일 30일전까지 궤도, 주파수대역 등을 신고하여 위성에 개발하고자 하는 무선국의 준공검사를 받도록 함
- 지구국설비는 혼신조정 및 전문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거쳐 설치·운용하도록 하며, 기본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전기통신설비와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위성설비, 지구국설비 및 관제설비의 주파수편차·폭등 기술적 조건은 체신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위성통신사업자는 위성을 보유하는 일반위성통신사업자와 일반위성통신사업자로부터 위성설비를 제공받는 특별위성통신 사업자로 구분하고, 일반위성통신사업자는 위성설비 및 지구국설비의 제공 등의 역무를 제공하도록 하며 특별위성통신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역무는 체신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일반위성통신사업자는 법인을 대상으로 체신부장관이 허가하되 외국정부, 외국인인 대표자이거나 임원수의 3분의1을 초과하는 법인, 외국인·외국법인 또는 주주1인(국가 또는 정부투자기관 제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3분의1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법인 등은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도, 통신·방송위성의 확보를 추진해온 전기통신공사는 법 시행일로부터 3년간 일반위성통신사업자로 허가받은 것으로 함
- 특별위성통신사업은 체신부장관에게 등록하고 경영하도록 하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복권되지 아니한 파산자 등은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역무를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없이 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함
- 위성통신기술의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위하여 연구기관을 전문분야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지구국설비의 표준화, 위성통신방식의 채택, 전문검사기관의 지정, 외국위성통신사업에의 참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 이 위성통신법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3년 7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체신부장관(참조 : 통신정책실 위성통신과장, 전화 750-235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자료: 관보 <93.6.28>

□ 외국인 투자, '97년까지 133업종 추가개방

- 현재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거나 국내기업과의 합작이 의무화 되어 있는 옥외광고업, 화물자동차운송업, 특수농기계, 건설업, 부가통신업이 '94년부터 개방되고, 일부도소매, 항공 및 육상운송중계 및 대리점업은 '95년, 상품연쇄화사업, 공사업, 인쇄업이 96년부터, 무역업, 신용카드업은 '97년부터 연차적으로 개방될 예정
- 항공관련부문은 항공기임대사업(조종사포함)은 '97년부터 자유화되고 항공기 지상관리 서비스업은 '97년 1월1일부로 부분개방됨
- 항공법상 항공기 지상관리 서비스업은 항공기정비업에 한해 외국인지분을 50% 미만 허용

□ 기술개발지원사업 지원현황

- 상공자원부는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92년까지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87~'92, 1,165건), 공업발전기금중 첨단산업기술개발과제('90~'92, 458건),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중 기술개발자금으로 지원된 과제('90~'92, 336건)등 총 1,959개 과제를 지원하였음
- '93년도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1차 신규과제 선정
 - 선정과제수: 87개 기술개발과제
 - 지원 규모 : 3년간 300억원
('93년중 131억원,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 62억원, 기업: 62억원)
- '93년도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2차 신규과제 추진일정
 - '93.6 : '93년도 2차 공업기반기술과제 선정
 - '93.8 : 과제의 신문광고
 - '93.10 : 사업계획서 접수
 - '93.11 : 과제지원

○ '93년 공업기술수요조사사업 2차지원과제중 항공분야

- 공업기반기술과제

압축기용 블레이드 단조기술 개발

구 분	내 용
기술/제품의 개요	- 718합금을 이용한 압축기용 블레이드 제조를 위한 금형제조, 정밀단조공정, 후처리 기술 국산화
개발목표 및 내용	- 718합금을 이용한 PW4000엔진 압축기의 블레이드 제조
개발시 기대효과	- 초내열합금 718은 성형성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정밀단조가 곤란하고 제품의 특성관리가 어려움. 기술집약도가 높아 관련기술을 확보할 경우 내열강, Ti 합금등 여타 금속 소재의 정밀단조분야에 직접응용이 가능함
국내 기술 동향	- 국내에서 관련분야에 대한 기술개발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이지만, 최근 가스터빈 및 스팀터빈 사업의 활성화와 함께 관련기술에 대한 관심은 고조된 상태임
해외 기술 동향	- 미국의 Storm Forge사가 PW4000 단조소재 공급중 - 세계적인 가스터빈 제조업체인 GE, P&W등에서는 관련기술을 보유하고 하도급 형태로 부품제작을 하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에서도 관련기술을 개발하여 소량부품을 자체 조달하고 있음

항공기엔진용 Bearing Housing 개발

구 분	내 용
기술/제품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에서 군용으로 사용중인 헬리콥터 엔진용 부품 - 초내열합금의 진공정밀구조에 의한 제조 - 형상이 복잡하고 칫수공차가 적어 외국제품의 경우에도 불량율이 많아 후가공으로 보완 - 칫수정밀도 향상을 위한 연구필요 - 칫수공차에 기인된 Prosimity 발생이 Casting Design에서 발생되기 쉬움
개발목표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E Engine(CT-7)용 Bearing Housing 국산화 개발 - 형상이 일정한 정밀구조로 제조하는 부품에 비해 복잡하고 칫수공차가 극히적어 주조결함을 방지하기 위한 주조 방안 - 공정조건의 엄격관리
개발시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진공정밀주조 기술의 공정기술 향상 - 항공기엔진용 소재부품의 자체생산공급 및 기술확보 - 초내열합금의 진공정밀주조기술 확보 및 대외수출 가능 - 단일품목으로(1기종) 연간 2.5억원 수입대체 - 칫수정도, 정밀도 향상으로 수출 가능
국내 기술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생산공급업체 없음
해외 기술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칫수 정밀도가 높고 불량발생이 많은 제품으로 제조원가가 높고 대외공급에 시기상 문제가 있음 - 미국의 Precision Castparts Co.에서 생산

- 융자대상과제

상업용 항공기 날개의 C-Frame 단조기술

구 분	내 용
기술/제품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기 날개의 Leading Edge에 뼈대 역할을 하는 C-Frame은 고도이 신뢰성과 내구성을 요하는 부품으로 현재 절삭가공으로 제작하고 있음 - 동 제품을 단조가공하여 제작하면 생산단가가 월등히 저하될 것으로 기대 - 제품의 신뢰성과 내구성이 절삭가공한 제품과 같은 정도가 되는 단조기술의 개발이 시급함
개발목표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기용 알루미늄의 단조기술을 개발 - 절삭가공한 C-Frame과 똑같은 신뢰성, 내구성 구비 - Al 7075 소재의 0.06 inch(1524mm) 박판형상의 부품을 절삭가공에서 단조가공으로 전환함
개발시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기 기체 제작기술 축적 - 알루미늄 단조기술 확충 - 대외경쟁력 강화
국내 기술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항공에서 소재를 전량 수입하여 절삭가공으로 제작하고 있음
해외 기술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 절삭가공으로 제작하고 있으나 일부에서 단조기술을 개발하여 시험중에 있음

○ 현재까지 항공우주분야에 지원된 사업

<단위: 천원>

과 제 명	주 관 기 관	정부출연금	개발기간
정밀주조법에 의한 Turbin Blade 제조기술	기계연구소	274,092	88.7-91.6
Internal Turbine Rotor 제조 (APU용)	기계연구소	278,273	91.9-94.8
항공기용 알루미늄합금(7xxx) 압출 및 평가 기술 개발	삼선공업(주) 기술연구소	166,433	91.9-94.8
항공기 부품 접합을 위한 Brazing Filler Metal	해사기술연구소	101,100	90.8-92.6
제트엔진 압축기용 Blade 단조품 개발 및 Airfoil 전해가공(ECM)	생산기술연구원	120,018	
소형 가스터빈 엔진 개발	삼성항공산업(주)	400,000	91.7-96.6
초경량 비행장치 제작기술	동양노즐공업	148,496	90.7-92.6
Experimental급 경비행기 설계제작 기술개발	항공우주연구소	284,366	91.9-94.8
헬리콥터 구동시스템의 설계 및 제작기술	서울대학교	307,704	91.8-94.7
항공기 탑재용 Radar Systems Software	삼성전자(주)	271,858	91.8-94.7
항공관제용 Radar System S/W 개발	희망전자개발(주)	127,526	91.8-93.7
인공위성 송수신 시스템기기의 설계 및 제조기술 개발	통신시스템설계 자동화연구조합	300,000	90.12-92.11
통신위성 자동 추적장치 설계 및 제조기술	하이개인안테나 통신연구소	72,627	90.12-91.11
소형 위성통신 중계기 개발	광운대학교	518,847	
항공기용 Radar System 제작기술	태산정밀	313,134	89.6-91.5
Segment Deflector Plate 제조기술 및 가스터빈엔진용 Pad 제조기술	한국기계연구원	84,232	92.8-95.7
다목적 무인헬기 개발	대우중공업	700,000	92.6-95.5
위성체 복합소재 구조물 설계/제작	대한항공	87,498	92.10-95.9
F-16 전투기용 연료통 장탈장치	동양노즐공업	304,000	91.12-93.11
천연가스용 대체연료 엔진개발	대우중공업	263,000	91.5-93.4
CAD/CAM에 의한 항공기 부품의 금형설계 및 제작기술	한국치공구공업	166,000	91.4-92.6

□ 상공자원부, 95년께 기술대학 설립계획

- 金喆壽 상공자원부장관은 6월16일 한국표준협회 주최 조찬회에서 “지난해 교육부의 반발로 이루지 못했던 산업기술대학법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95년에는 기술대학을 설립하겠다”고 밝힘
- 김장관은 기존의 교육법의 체계와는 다른 산업기술교육법의 제정을 적극 추진, '94년에 준비과정을 거쳐 95년에는 기술대학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 산업기술교육법의 입법화를 통해 공고-전문대학-기술대학(원)으로 이어지는 기술교육체계를 구축하여 우수한 산업인력 확보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힘
- 기술대학의 규모는 업종별로 특화된 현장기술 중심으로 운용되어야 산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1개교당 200명 규모로 '97년까지 공과대학 정원의 2%수준에서 시범운영해 나갈 계획
- 상공자원부는 산업기술력 제고를 위해 산·학·연 협동연구체제 정립에 주력, 지방의 대학과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공동기술개발 지역 컨소시엄 사업을 확대하고 지방의 공업기술원과 공과대학이 지역기술센터로서 종합적인 기술지원기능을 수행토록 할 것이며
- 산학협동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대학에 대한 기업기부금의 손비처리한도를 확대할 계획

□ 신경제5개년계획에 의한 관세감면제도 개편방안

- 첨단산업·방위산업·선박엔진및 항공기부품등 산업별로 지원되는 관세감면지원이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98년에 완전폐지됨
- 공장자동화·기술연구용품·공해방지시설·직업병예방용품등 기능별로 지원되는 관세감면은 계속 유지되지만 대상품목은 차츰 감소됨
- 재무부는 이와같은 내용의 신경제5개년 기간중 관세감면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관세법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함
- 현행 관세법에 의하면 첨단·방위산업에 대한 관세감면은 '93년말로 적용시한이 끝나도록 명시돼 있으나 이를 '97년까지 연기하되 감면율을 '93년에 40%, '94년 35%, '95년 30%, '96년 25%, '97년 20%로 매년 5%씩 줄이기로 함
- 관세감면 품목은 현재 1089품목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나 첨단기술 프로젝트 중심으로 선별해 첨단전략산업에 필요한 시설재만 남기고 매년 축소해 나갈 계획
- 산업별지원에 해당되는 선박용엔진(외항용)·항공기제작 및 안전용품 등에 대한 지원은 대상품목 및 감면율을 축소시킬 계획이나 매년 1회 대상품목을 재검토해 지원 필요성이 감소된 품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계획
- 지난 한해동안 지원된 관세감면액은 3,898억원으로 '92년도 관세세입 3조1,532억원의 11% 수준

Ⅱ. 협회 및 회원사 동정

1. 협회동정

□ 싱가포르 에어쇼 전시참여 준비회의결과

- 일 시 : 1993. 7. 8.(목) , 15 : 00 - 17 : 30
- 장 소 : 협회 회의실
- 참석대상 : 삼성항공,대우중공업,대한항공, 한라중공업, 한국로스트왁스, 협회
- 토의결과
 - 전시장 규모
8 × 12 = 96 m² (10.7 Booth)로 확정 추진
 - 전시공간 운영방안
한국관 및 참여업체의 이미지를 공동 부각키 위해 한국관 내의 전시공간을 일체로 공동관을 중심으로 각사의 분담비율에 따라 적절한 공간을 배치, 전시키로 함
 - 회원사별 비용분담
삼성항공, 대우중공업, 대한항공, 한라중공업 4개사는 총소요비용의 22.5%씩을 부담키로 하며, 한국로스트왁스는 총비용의 10% 를 부담.
 - 브로셔 및 홍보자료
전 회원사를 중심으로 작성되는 공동자료는 협회에서 비용을 부담 제작 하되 참여사 개별 홍보자료는 각사별로 제작.
 - 전시장 안내요원
각 업체당 안내요원은 2명 이내로 정하되 특별한 제한은 두지 않음
 - 기획사 선정
전시의 설계, 디자인, 시공까지 담당할 기획사를 각 업체별로 추천하여 입찰방식으로 선정
 - 비용부담
주관 Reed사, 기획사 및 기타 용역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진척상황에 따라 협회가 청구하고 참여사가 분담

2. 회원사 동정

□ 한국로스트왁스공업, 공업진흥청장상 수상

- 한국로스트왁스공업은 6월30일 기술개발과 품질개선에 힘써 중소기업제품의 고부가가치화와 기술선진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는 내용으로 공업진흥청장이 수여하는 기술혁신상을 수상

□ 현대항공산업, 노드롭사에서 'Key Plan Award' 받음

- 5월12일 미국 Northrop 항공기 제작사에서 개최한 1,000회 B-747 기체 인도 기념식에서 노드롭사는 현대항공산업을 칭찬하는 내용을 발표하고 향후에 Northrop에 납품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Northrop의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현대항공산업이 최종 검사하는것을 인정하는 "Key Plan Award"를 수여함
- 행사의 사회이자 민수용 항공기 부문의 부사장인 Jim Hoover는 "한국에 있는 현대항공산업은 B-747 프로그램에 따라 노드롭사에 스트링거 클립 (Stringer Clip)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노드롭에 납품하는 회사들중 최고의 품질을 기록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로 부터 아직 불량품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구성원의 노력에 의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와같은 이유로 현대항공산업의 노고를 높이 치하하는 바 입니다." 라고 현대항공산업을 칭찬함
- 'Key Plan Award'는 노드롭사에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중 납기와 품질면에서 최고를 기록하는 10% 미만의 회사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현대항공산업은 1989년부터 노드롭사에 스트링거 클립을 공급하고 있음

Ⅲ. 국내 항공우주산업동향

□ 기계연구원, 항공기엔진 터빈용 합금기술 개발

- 한국기계연구원은 항공기엔진의 터빈블레이드 생산에 사용되는 초내열합금 단결정용고기술을 개발
- 7월9일 기계연구원에 따르면 내열재료실 연구팀이 개발한 합금기술은 선진국에서 실용화 되었으나 대외유출을 엄격히 통제하는 첨단기술.
- 초내열합금 단결정 용고기술은 1500~1600도의 고온진공상태에서 금속을 용융한 후 특수공법으로 1개의 결정립만으로 제품을 제조하는 것
- 이 기술을 이용하면 터빈블레이드의 국산화가 가능하여 엔진의 국산화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한·중 우주기술협력 추진

- 중국항천공업총공사 유기원총경리(장관급)를 단장으로 한·중우주기술협력 대표단(11명) 일행이 김시중 과기처장관의 초청으로 6월28일 내한
- 이들 대표단은 항공우주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연구센터, 대우중공업, 기아자동차 등 관련연구소 및 민간연구소를 방문하여 기관간 협력방안을 논의 하고 항공우주연구소와는 자원탐사위성 및 수신처리기술 등 위성체분야에 관한 공동연구 등을 중점 협의
- 양기관은 지난 6월4일 아·태 회의에서 논의 됐던 저궤도 소형위성에 관한 사전연구사업을 적극추진키로 하고 항공우주연구소 자체비용으로 공간기술연구원의 위성설계전문가 2명을 초청, 기술을 전수 받고 한국측 소속연구원 2명을 중국측에 파견할 예정이며 상호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력창구를 두고 이를 통해 우주기술 및 관련정보를 교환하며 연구원의 교류를 적극지원키로 함

- 한국항공우주연구소는 7월1일 중국의 항천공업총공사 산하기관인 공간기술연구원과 우주기술 및 관련정보교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 체결
- 20만명의 종사원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의 우주개발산업은 지난 1956년부터 국가 장기계획으로 우주개발에 착수, 지난 70년 중국 최초의 인공위성 「동방홍 1호」를 발사한데 이어 88년 발사체인 「장정 3호」로 방송위성을 쏘아 올리는 등 뛰어난 우주기술을 확보

□ 항공기 소개서 발간

-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항공무기체계 소개책자가 공군에 의해 발간
- 공군본부 전투발전단이 펴낸「현대항공무기총람」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세계 각국에서 운용되고 있거나 개발중인 최신항공무기체계를 종합정리한 것
- 공군내의 항공운항과 산업공학박사등 전문가 14명을 선정, 작업을 시작, 각종 무기체계 관련자료 수집을 위해 공군내 정보자료관리실 및 전투기 발전단 자료실, 각급학교·도서관·언론사 등과 국내외 전문서적 및 간행물, 각급 연구기관의 연구논문과 해외무기생산업체의 소개자료 등을 참조
- 5백77쪽의 이 책자는 항공기·항공무장·항공전자장비 등으로 구분해 정리했으며 사진과 도표를 활용, 비전문요원도 내용을 쉽게 알 수 있게 함

□ 상업 위성통신서비스 내달 개시

- 6월21일 한국통신은 작년 9월부터 삼성물산·연합통신·(주)STM 등 일부기업을 대상으로 무료시범서비스를 실시해온 위성통신서비스를 오는 7월1일부터 상업 서비스로 전환, 일반기업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힘
- 한국통신은 이를위해 적도상공 3만6천km에 떠 있는 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Intelsat)의 「태평양5A호」위성의 중계기 1대를 임차하여 다음과 같이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
 - 위성기업통신망서비스: VSAT(초소형지구국)라 불리는 지름1.2~1.8m의 접시안테나와 간단한 송신장치를 설치하여 본사와 지사·계열사간, 각 체인점간에 전용 데이터·컴퓨터통신망을 구성해 주는 서비스
 - 위성비디오통신서비스: 지금까지 TV방송사에서나 제공하던 비디오와 음성의 동시 전송을 일반인이나 기업체들도 자체비디오 방송망을 구축하여 사내 TV, 원격강의, 스포츠중계 등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
 - 위성디지털회선서비스: 초당 56킬로비트에서 2메가비트까지의 전송속도로 데이터를 송수신 할 수 있는 고속데이터전송 전용서비스 등 3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 이같은 위성통신서비스는 한번의 송신으로 여러곳에 동시에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동보성 때문에 요금이 유선전용 회선보다 저렴한데다 VSAT로 손쉽게 통신망을 구성할 수 있고 홍수, 지진 등 재해시에도 안전한 통신을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한국통신은 국내에서도 보급이 급증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현재 삼성그룹, 럭키금성그룹, 한국마사회, 선경증권, 포철등이 위성통신서비스 이용을 적극 검토중이라 함

□ 한국통신 2천1년까지 위성통신연구소 등 신설

- 6월26일 한국통신이 밝힌 「연구개발 중장기 추진방향」에 따르면 이를 위해 오는 '94년 까지 통신 시스템개발센터를 비롯해 기술표준연구센터·경영연구소·휴먼인터페이스연구소를, 오는 2001년까지는 교환기술·전송기술·무선기술연구소와 위성통신연구소를 각각 신설하는 등 전문화된 자체 연구소를 설립할 계획
- 한국통신은 또 연구개발 재원 및 연구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율을 올해의 5.5% 수준에서 오는 2001년 까지 10%수준으로, 전체 종업원 대비 연구인력 비율을 2.1%에서 5%로 각각 올리기로 함
- 2001년까지 한국통신의 연구개발투자비는 9천1백억원, 연구인력은 4천명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
- 한국통신은 이같은 투자비 및 연구인력을 활용해 핵심 정보통신 기술의 개발에 주력, 오는 '96까지 중기 기술과제로 ATM(비동기전송모드 방식) 교환기를 비롯해 GbPs 광전송시스템, 광대역 ISDN(종합정보통신망)용 단말기, 1세대 무궁화위성, 유무선개인통신시스템, 지역망운용보전시스템, 통신망구축기준·시스템시험·인증기술, GbPs급 광소자 정보처리용 컴퓨터, 멀티미디어·실시간 DB(데이터베이스)기술 등을 개발 할 계획
- 이와 함께 오는 2001년 까지 장기기술 과제로는 광교환기를 비롯해 GbPs급 광전송시스템, 멀티미디어 지식정보처리용 컴퓨터, 자동통역기술 등의 개발에 나서기로 함

□ 항공기엔진이용 발전방식 도입 추진

- 우리나라에서도 항공기엔진을 이용한 도시형 발전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보임
- 6월8일 한국기계연구원과 대한항공에 따르면 가스터빈식 항공기엔진을 이용한 5만~10만kw급의 소형발전방식이 미국에서 이미 실용화되고 있어 이를 국내에 도입할 것을 검토중
- 특히 대한항공측은 미국의 엔진 제조회사인 P&W사로부터 관련기술을 지원 받기로 했으며 기계연구원과 공동기술개발에 착수
- 관련기사: 항공우주산업동향 93/2, page 36

□ 한·러 군수산업민수화협력 본격추진

- 한·러시아간 군수산업의 민수화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6월25일 무역진흥공사에 따르면 '93년5월 한·러시아 양국정부간에 체결된 '한·러민수화협력양해각서'하의 한국측 협력창구인 KOTRA는 7월말 업계실무전문가를 중심으로 '러시아첨단기술 및 신소재도입 사절단'을 파견 할 계획
- 지난 5월 24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러산업협력회담'에서 양국은 항공·우주 광응용기기·컴퓨터·통신기기·중전기기·조선·전자부품·반도체·요업·계측제어기기 등 모두 13개 분야의 294개 기술리스트를 공동개발키로 합의한 바 있음
- 무역진흥공사는 러시아군수산업의 민수전환에 대한 참여는 기술협력이나 합작투자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면서 현재 러시아의 정치·경제적 불안, 투자시의 제반제약조건 등을 고려할 때 우선 위험부담이 적은 첨단기술의 도입을 통한 신상품개발이나 소규모투자방안이 안전하나 러시아의 풍부한 지하자원, 막대한 잠재적 구매력 등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합작투자형태가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

- 무역진흥공사 주관으로 한국전기연구소를 비롯한 한국중공업 등 14개 민간기업으로 구성된 이번 사절단은 업체별로 해당기술 보유 러시아측 파트너와의 개별 상담을 통한 러시아 첨단기술 및 신소재 도입을 추진할 계획

- 이번 참가하는 14개사들은 5월31일 충남 대덕에서 개최된 1)「러시아첨단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러시아 측으로부터 도입할 총39개 기술 및 신소재를 설정하고 있음

- 현재 업체별로 제의한 첨단기술 및 신소재
 - 한·소기술교역 : 특수강의 질화열처리기술
 - 대도물산 : 농색료의 제조방법
 - 삼화콘덴서 : 니켈 및 스트론튬을 이용한 영구자석
 - 아주셔터공사 : 신연마제 제조방법의 4개분야
 - 청송기계 : 수평머시닝센터
 - 바콤상사 : 진공관련기술
 - 동진전기 : 디스크 개발
 - 한국전기연구소 : 스위치전원용 비정질 재료 분야
 - 만도기계 : 박판생산기술의 4개
 - 한국중공업 : 항공기술의 10개
 - 삼도물산 : 고온가스배출장치의 4개
 - 새한전기 : 전기이동용 에너지축전지의 7개 등

- 관련기사: 항공우주산업동향 93/2 page 30

1) 참고: 항공우주산업동향 93/5, page 60

IV. 해외 항공우주산업 동향

□ 북미지역의 군수분야 항공우주산업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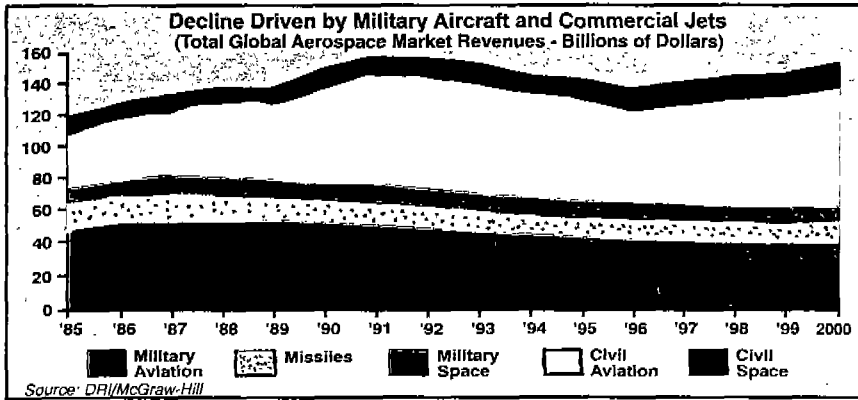
◇ 세계항공산업전망 요약

소수의 업체만이 불황을 견디고 90년대 후반 호황을 누릴수 있을것임

- 향후 5년간의 전반적인 전망을 한마디로 일축하면 '과도기'라 할 수 있음
- 국방예산이 심각하게 감소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항공사는 흑자를 위한 노력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쓸 겨를이 없을것임
- 이런 중복된 충격은 전산업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며 침체가 회복된 후에는 많은 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은 후 일것임
- 여기에서는 주요시장과 항공산업 발전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각 요인들을 DRI와 McGRAW-Hill이 분석한 것임

- 향후 5년간 세계의 항공우주 제조업체들은 국방예산의 감축과 경쟁의 심화로 계속 고전할 것임
- 방산 및 상용의 양대부문 모두 1995년까지는 하향세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1996~2000년 민수부문의 강한 회복세를 전망
- 가장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부문은 민수우주분야(Civil Space)이며, 2000년 세계 민간우주부문의 제조업은 1991년에 비해 40%가 증가한 130억달러에 달할 것임(지상장비 제외)

세계 항공우주시장 전망 (단위:10억달러)



○ 1993~2000년 세계 항공우주산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매출액은 1991년의 1,570억달러에서 1996년에는 1,350억달러로 하락할 것이나 1996년은 1987년의 매출액 보다는 높은 수준이며 항공우주산업에는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임
- 민간항공에 비해 군수시장은 매우 급격한 침체가 예상되며 1991~2000년 사이에 미국은 20%, 유럽은 10%의 매출액 감소가 예상됨
- 항공우주산업의 국제화가 가속될 것임
- Business, Commuter jet, 헬기, 항공전자, 비축부품(spare parts), Overhaul 등 상용기의 일부분야는 성장세를 보일것임
- 미국과 유럽은 군수품 수출로 내수시장 침체를 보충기는 어려울 것임
- 대형회사들 특히 군납회사들중 거대 합병회사에는 2)기업합리화현상(rationalization)이 나타날 것이며 군소 납품업체들의 대량도산이 예견됨

○ DRI에 따르면 1993년도 미국의 항공우주 매출액은 약1천억 달러로 세계시장의 2/3를 약간 상회할 것임

2) 기업합리화는 시장수요의 감소에 따라 회사의 규모가 축소되고 종업원을 감원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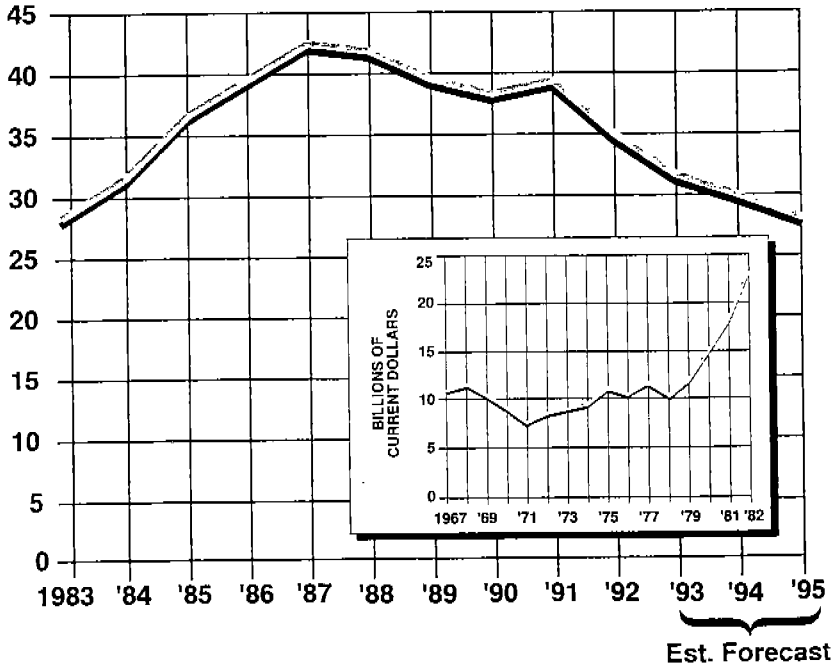
- 다음과 같은 몇가지 이유로 미국의 매출액은 미국항공우주협회(Aerospace Industries Association)의 전망치 1,260억달러 보다 낮게 나타남
 - DRI의 전망은 최종 선적된 제품만을 계산
 - DRI는 서비스업이나 항공관제장비같은 지상항공전자장비는 포함시키지 않음
- 90년대에도 미국은 세계 항공우주산업을 계속 주도해 나갈 것이나, 내수 제조업체들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이나 다른 신흥 경쟁국들에게 서서히 잠식당할 것임
- UBS의 안보전문가 Wolfgang-Demisch는 환태평양 지역국이 그들의 항공시장을 강력하게 확장해 나갈것이라고 말함
- AIA의 경제학자 David Vadas에 의하면 실제적인 미국의 수출증가는 제3세계에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최첨단 설비를 갖추지 못한 선진국이나 중진국에 대한 수출에 기인함
- DRI의 산업부문 담당자 Roger Winsby에 의하면 2000년까지 매출액은 감소와 증가를 거쳐 다시 1991년의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며 전산업에 대한 경쟁의 증가로 대부분의 제조업자들은 어려운 고비가 될 것임
- 항공운송 서비스 부문과 부품 공급 업체는 1995~2000년 사이에 가장 유리한 고지를 차지 할 것인데 그이유는 군수 및 민수항공기의 생산량 감소로 현존 항공기의 유지 보수용 항공기체의 부품이 250억달러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임
- 2000년까지 Boeing, MD, AirBus 등 운송기 제조업체와 그들의 부품 제조업체가 민간항공시장 700억달러의 70%를 차지 할 것임
- DRI/McGRAW-Hill의 이런 전망치는 Moody's Investor Service 및 Wall Street debt-rating agency 등이 상용 항공기 시장이 향후 2년동안 계속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과 일치

- 방송 및 통신위성, 환경탐사장비, 연구개발 등 우주부문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며 기술의 진보와 통신위성 이용의 확대는 우주부문매출액 증가에 활력소가 될 것임
- 핵탄두 지대지 미사일의 감축으로 무기생산대수가 감소할 것이나 기술의 발달로 대당 단가가 상승하여 고급화 되기 때문에 미사일 부문의 매출액은 많이 감소하지는 않을 것임
- 유럽의 항공우주 회사들 중에 합작회사나 제휴회사들은 개별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했던 프로그램을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미국 경쟁사들과 대등한 가격으로 시장을 확보해 나가고 있음
- Winsby는 유럽이 미국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함
 - 유럽 회사들은 대부분이 국영회사이기 때문에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 개발비에 투자하기가 쉽다
 - 미국은 회사구조를 바꾸는 등으로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반응(기업합리화) 하지만 유럽은 계속된 투자로 장기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것임

◇ 미국

- 미국은 심각한 국방예산 삭감과 수출부진으로 군용기의 판매는 계속 저조할 것이나 신기종의 개발 대신 잠재적인 개조나 개량사업은 부분적인 침체를 벗어날 것임
- 비행기, 헬리콥터, 별도구매엔진, 계기, 전기, 부품, 악세사리, 기타 항공제품과 항공운항을 위한 서비스, 정비, 수리, 개조, 개량, 비축부품수요등을 포함한 미국의 군용기 매출액 전망은 다음표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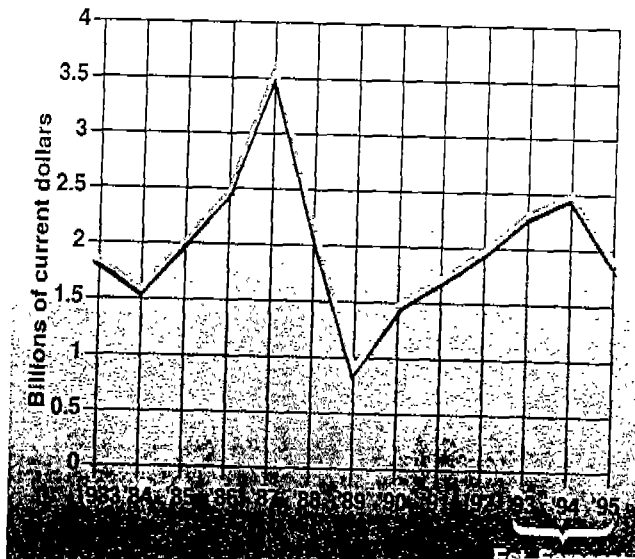
미국의 군용기 매출액 전망 (10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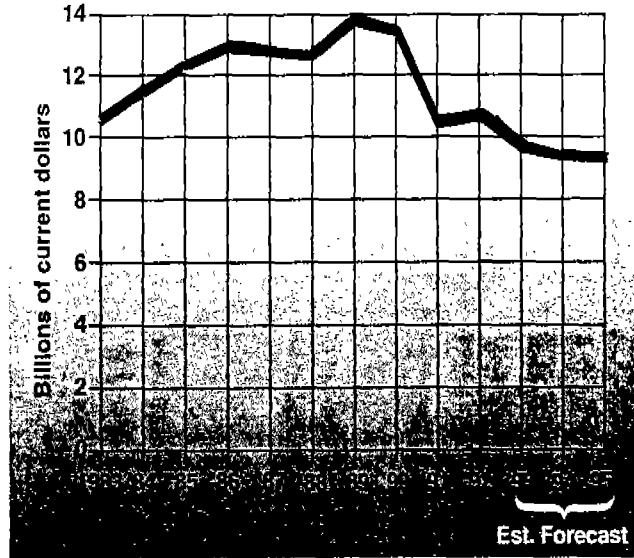
- 국방예산 감축으로 두개의 신형전투기(F-22, A/FX)계획을 계속 추진하는 대신 F/A-18 E/F 와 F-16의 개량사업을 포기하는 1안과, Advanced Short Take-Off Vertical Landing(ASTOVL) 항공기 제작기술이 완비될 때까지 F-22와 A/FX계획을 포기하는 2안중에서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F-22, A/FX, F/A-18E/F 프로그램 등의 추진이 위협에 직면해 있음
- 클린턴 정부의 국방예산 삭감계획은 미군의 신종 무기개발을 억제하고 현존하는 무기체제를 개량한다는 복안임
- 클린턴 행정부는 향후 5년간 미국의 국방예산을 1,270억달러로 삭감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으며 그것은 클린턴 후보가 향후 4년간 삭감하겠다고 공약한 것의 2배 수준임

- 삭감이 시작되면 97년에는 360억달러, 98년에는 390억달러의 예산절감이 기대되며 일각에서는 국방예산 삭감이 너무 심하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 미국은 항공모함을 10척으로 감소시킴에 따라 1998년까지 164억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운용비: 130억달러, 구매: 33억달러) 여기에는 3대의 비행단 해체와 27척의 구형 수상함(surface ship)의 퇴역이 포함된 것임
- 장기간의 예산 압박에 의해 해군은 A-6 Intruder를 폐기하고 F-14를 공대지 공격력을 갖춘 것으로 개량할 계획
- 클린턴 정부의 수송량 증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C-17이 감축대상에 포함되었으며 C-17 대신에 C-141의 수명을 연장시키거나 C-5 수송기의 생산을 재개하는 것도 검토중임
- CBO의 전망치에 따르면 C-17 100대의 수송능력은 C-5 수송기 70대에 해당되며 소요액은 144억달러에 이르며 C-5의 생산을 재개하는 안은 C-17 프로그램을 완료(247억)하는 것보다 100억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미국의 국방구매 예산은 4~5년간 증가하지 않을 것이며 군수 부문에서 침체된 부분을 회복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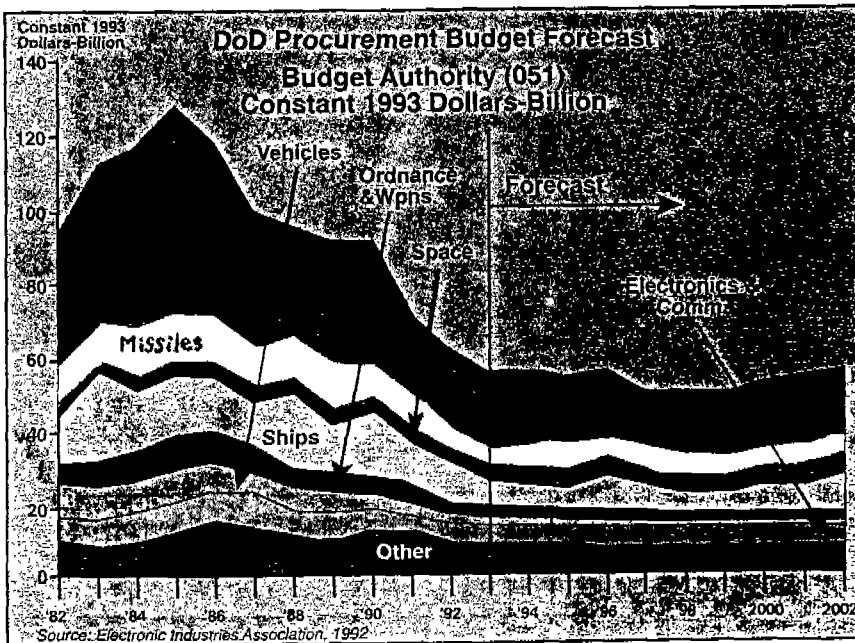
군용 항공기의 수출 전망 (10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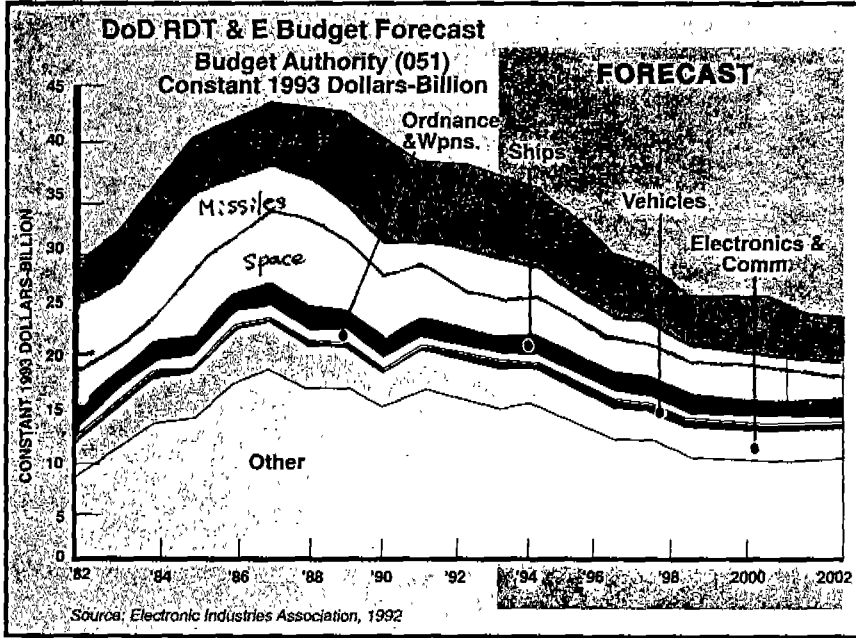
미사일 부문의 매출액 전망 (10억달러)



미 국방부의 구매예산 전망 (10억달러)



미 국방부의 연구·개발·시험·평가 예산 (10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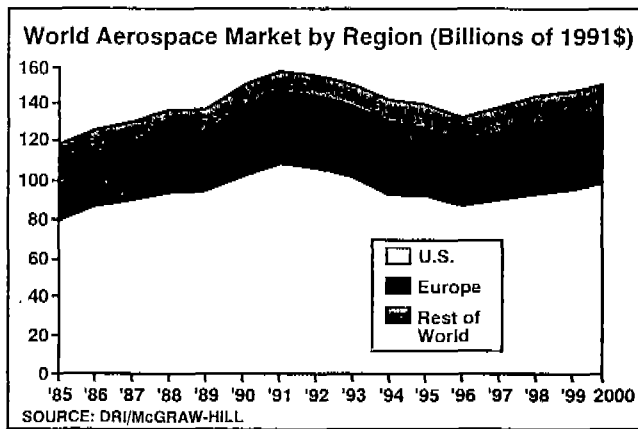


◇ 캐나다

- 캐나다의 항공산업은 연간 매출액 90억달러의 70%를 수출에 의존하고 있으며 구매자의 대부분이 미국인데 군수요의 감소로 더욱 치열한 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음
- 90년대 후반에 새로운 경기 회복이 기대되기는 하나 누구나 80년대의 호황을 다시 누릴 수는 없으며 2~3차 하청업자들도 현재의 침체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임
- 캐나다의 실질적인 매출액 감소를 피할 수 있는 두가지는 국방부에서 EH-101 40대와 Bell-412 100대를 구매해 주는 것임
- EH-101은 유럽의 EH Industries에 의해 제작되었고 IMP 그룹이 Paramax Systems Canada에서 제작된 대잠·지면탐사용 전자장비를 탑재한 것으로

- EH-101은 유럽의 EH Industries에 의해 제작되었고 IMP 그룹이 Paramax Systems Canada에서 제작된 대잠·지면탐사용 전자장비를 탑재한 것으로 Halifax와 Novascotia에 탑재 되었음
- EH-101 프로그램은 아직도 진보적 보수정부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으나 자유당과 신민당에 의해 취소를 강요 받고 있음
- 카나다는 93년말에 국민투표가 있으며 그때에 EH-101 프로그램의 사활이 결정될 것임

지역별 항공우주시장 (10억달러)



- 자료: Aviation Week & Space Technology <93.3.15>

□ Boeing, 수퍼점보기 개발 연구에 일본 참여요청 거절

- 일본의 미쓰비시, 가와사키 및 후지등 항공3사는 보잉사의 2000년대 운항을 목표로 하는 600~800석급 초대형 여객기에 대한 시장조사에 공동참여를 시도하였으나 실패 하였음
- 4월중순 미쓰비시의 최고 경영층에서 일본의 공동참여가 가능한 것처럼 언론에 정보를 흘렸으나 보잉사는 즉각 이를 부정하였고 시장조사팀에 일본을 포함시켜 확대 개편할 의사가 없음을 덧붙였음
- 현재 시장조사에 참여하는 업체는 독일의 DASA, 프랑스의 Aerospatile, 영국의 BAe 및 스페인의 CASA임
- 자료: Asian Aviation 93.4

□ 유럽의 군용 수송기 EUROFLA 계획

- 유럽은 신형 전략수송기 Eurofla를 개발하기 위해 컨소시엄(Euroflag)을 구성하였으며 컨소시엄에는 엔진 제작사도 2개사가 포함되었음
- 그러나 Eurofla의 개발을 추진하기에는 확실한 고객이나 투자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임
- 21세기에 유럽의 군에서는 Lockheed의 C-130 Hercules와 Aerospatile & MBB의 C-160 Transall 같은 수송기에 대한 대체기종이 필요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음
- Lockheed는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C-130의 성능을 개량하여 C-130J 기종을 개발하였으나 유럽군의 지휘관들은 항속거리, 비행속도, 유상하중 등 C-130J 신형기를 능가할 만한 성능을 요구함

- 개념적으로 Eurofla는 MD의 C-17기와 비슷하며 충분한 항속거리(Range)와 성능(Performance)를 보유한 4발 터보팬 수송기로 제한적인 곡예비행이 가능함
- C-17기는 유럽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가격이 너무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Eurofla는 C-130J기와 C-17기의 중간으로 가격면에서 유리함
- Euroflag은 Eurofla 계획에 많은 사전작업을 수행하였으며 BAe를 제외한 대부분의 컨소시엄 참가회사는 정부의 지원을 받음
- 대부분 전문가들은 Eurofla가 Airbus와 비슷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심지어 Airbus가 Eurofla를 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함
- 그러나 Airbus가 그것을 제작하는 것을 정치적인 문제와 예산상의 문제(민수용 항공기의 개조와 수명연장등 사업진행)로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유럽은 고가의 수송기(Eurofla)를 소량 구매하는 것과 저가의 수송기(C-130J)를 대량 구입하는 두가지를 놓고 결정을 못하고 있으며 어쨌든 Eurofla는 대량 생산 되지는 않을 것임
- 또한가져 방해는 정치적인 것으로서 Eurofla의 작전구역이 유럽 국경을 초과하기 때문에 유럽이외의 국가들과의 분쟁의 소지가 있음
- 자료: Flight International <93.6.16-22>

□ SIKORSKY, S-92 헬리콥터 개발 파트너 물색

- 시콜스키사의 사장 Eugene Buckley에 의하면 시콜스키사는 S-92 수송용 헬리콥터의 공동개발을 위해 유럽과 아시아에 협력여부를 타진중임
- S-92 계획의 성공여부는 군수요에 달려 있으며 일본의 미쓰비시사에서 검토중

에 있으나 버클리는 일본과의 합작여부에 대한 결과를 밝히지 않음

- 네덜란드 Philip사와의 합작은 93년6월에 발표되었으며 네덜란드 공군의 중형 헬기 17대 구매계획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자료: Flight International <1993.6.16-22>

□ CASA-3000, 1단계 기체 테스트 완료

- 스페인의 항공기 제작사 CASA는 CASA-3000 쌍발 터보프롭 Regional-Jet의 기체의 기본적인 배치(Configuration)를 완료하는 1차 풍동시험을 끝냄
- 네덜란드 Emmeloord에 있는 독일-네덜란드 합작풍동(DNW)에서 저속시험을, UK 항공기검사협회(Aircraft Reserch Association)의 천음속풍동에서 고속시험을 완료함
- CASA는 종합적인 풍동시험을 '92년 10월 개시하였으며 18개월의 일정으로 '94년에 마무리할 예정
- 다음단계는 구동중 모델시험(Powered Model Test)이며 프랑스 Le Fauga의 Onera F-1 풍동에서 저속시험을, Modane의 Sima 풍동에서 고속시험을 할 예정
- CASA와 Onera에 의해 조종면(Control Surface)이 원격조종되는 1:8 스케일 실물모형이 곧 완성될 것임
- 자료: Flight International <1993.6.16-22>

□ 파키스탄, 터키제 Black Hawk 도입 희망

- 파키스탄은 터키에 시콜스키사의 UH-60 블랙호크기의 구매를 정식요청
- 터키는 1992년 미국의 시콜스키사로부터 11억달러에 면허생산 계약을 체결하여 헬기를 생산하는 것이므로 이의 판매에는 미국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미국이 터키에 면허한 45대중 20대는 이미 인도되었으며 수도 앙카라 근처의 Murted공장에서 1994년까지 50대 이상이 생산 될 것임
- 미국은 파키스탄의 핵무기 개발에 따라 파키스탄에 대한 일체의 무기수출을 금지하여 이미 도입된 F-16 전투기의 부품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파키스탄은 F-16과 C-130 항공기에 필요한 터키제 비축부품(Spare Parts)를 구입하려 하였으나 미국의 제재로 실패한 바 있음
- 자료: Flight International <1993.6.16-22>

□ F-18C/D 판매 현황

- MD의 George Hibbard에 의하면 쿠웨이트가 F-18C/D 40기를 구매 할 것이라 함
- 이스라엘은 40~50기의 야간공격기를 구매할 계획인데 Lockheed의 F-16과 MD의 F-18D(복좌식)중에서 93년10월중으로 결정될 예정
- 이스라엘은 이미 F-16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F-18이 불리한 면이 있으나 이스라엘 공군은 F-18D 모델의 종합적인 야간 공격력을 선호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에는 F-18D 18기가 입찰중이며 이달 중으로 결정될 것임

- 핀란드는 64대의 전투기를 구매할 예정이며 F-18C/D의 구입을 검토중
- 자료: Flight International <1993.6.16-22>

□ 미-EC간 항공사 보조금 지원에 신경전

- 미국과 유럽공동체(EC)는 10일 서로 상대방 정부가 항공기 제작사에 대한 정부보조금 상한규정을 위반, 한도를 초과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삭감을 요구함으로써 항공보조금을 둘러싼 분쟁재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에어쇼에 참가중인 론 브라운 미상무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은 오랜 미·EC간 정부 항공보조금을 둘러싼 분쟁을 일단락 짓기 위해 지난해 7월 EC와 체결한 협정을 새로운 다자간 협정으로 변경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힘
- 브라운 장관은 이어 미정부는 현행 미·EC간 항공보조금협정은 항공기 제작사에 직접 보조금 상한이 33%로 규정돼 있으나 이를 20%로 낮추기를 원한다고 말함
- Airbus사의 한 대변인은 “MD가 항공산업에 대한 정부 간접보조금 상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믿는다”고 반박
- 수년에 걸친 논란 끝에 지난해 7월 합의된 정부의 직접보조금은 전체개발비용의 33%를, 간접보조금은 연간 총매출고의 4%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아시아권 항공사들, 대미 항공협정 재협상 촉구

- 아시아지역 주요 항공사들이 22일 사상 처음으로 미국과의 불평등한 항공협정의 재협상을 자국정부에 요구함
- 아시아지역 15개 항공사들로 이루어진 오리엔트항공협회(OAA)는 이날 성명을 통해 「현재 미국과 아시아국가들간의 항공협정은 아시아지역의 항공산업이 영세했던 지난 50~60년대에 체결된 것으로 아시아국가들에 불리한 조항을 많이 담고 있다」면서 기존협정의 개정을 촉구
- 차트라차이 아난타 OAA회장은 ‘불평등한 협정으로 아시아국가들은 아시아지역내에서조차 미국항공사들에 밀리고 있다’면서 ‘OAA는 더이상 이같은 항공협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
- 현재 미국 항공사들은 아시아 21개 도시에 취항하고 잇는 반면 아시아 항공사들은 미국 9개 도시에만 겨우 진출하고 있는 실정, 한 항공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00년 까지 세계전체 항공시장의 점유율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이 39% ▲ 유럽 26% ▲ 북미 23%에 각각 이를 것으로 예상
- 항공전문가들은 OAA의 성명이 경제공동체 안에서 유럽항공사들이 이익문제에 공동대처하고 있는 것과 같이 아시아항공사들도 연대강화를 통해 입지를 넓히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봄

□ 미, 우주정거장 계속 추진

- 미하원 우주과학기술위원회는 6월9일 항공우주국(NASA)의 우주정거장 계획을 폐기하지 않고 계속 추진키로 함
- 위원회는 1백50억달러에 달하는 NASA예산 배정을 심의하면서 우주정거장 「프리덤」계획을 중단하자는 제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0표 반대 30표로 계속 추진키로 결정

-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지구궤도 연구계획을 수정해 경비를 절감하라는 백악관 지시에 따라 덴 폴딘 NASA국장이 우주정거장 설계 수정안 4가지를 제시한뒤 이를만에 결정

□ 미, 러시아 국영사 무역제재 단행

- 미국 정부는 미사일수출통제조약을 위반하고 미사일 로켓 엔진을 인도에 수출하고 있는 수개의 러시아 국유회사들에 대해 무역제재조치를 내렸으며 마이클 매커리 미 국무부대변인은 요격미사일 관련기술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국제적 미사일기술통제 제도의 규정을 어긴 국가에 대해 무역제재 조치를 취한다는 미국 국내법에 따라 지난주말 이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미 국무부가 6월25일 밝힘
- 미국은 '93년5월 러시아의 글라브 코스모스사에 대해서도 무역제재를 단행하였으나 양국이 로켓엔진 수출 중단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동안 제재조치의 효력을 발동하지 않고 있다고 밝힘
- 제재 대상이 된 러시아 회사들은 인도에 3억5천만 달러 상당의 로켓엔진 판매를 진행중인데, 현재 8천만달러만이 러시아측에 지불된 것으로 알려짐
- 미정부는 7월중순까지 러시아측의 반응을 기다려 제재조치의 발동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이며 제재조치가 발동되면 러시아의 해당기업과 미국기업과의 거래가 금지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고 함
- 매커리 대변인은 이번 무역제재로 인해 빅토르 체르노미르딘 러시아총리의 미국방문이 연기됐다고 밝힘

□ Lockheed, 대만에 F-16 정비공장 설립

- F-16 전투기 제조회사인 Lockheed사가 대만에 항공기 정비회사를 설립할 것이라고 경제부 관리들이 6월19일 밝힘. 록히드사는 이미 대만 국방부 및 경제부와 이에 관한 합의가 끝났으며 록히드사는 F-16전투기 관련 기술의 대만 이전도 약속했음을 밝힘
- 총 6백만달러 규모의 상쇄 차관계약에 따라 록히드측은 대만에 전투기 정비센터를 설립하고 대만이 추후 구입할 항공기 부품을 제조할 기술과 전문가들도 제공하게 될 것이며 미국은 오는 '99년 말까지 1백50대의 전투기를 대만에 인도할 계획
- 미국과 대만은 지난해 11월 워싱턴에서 1백50대의 전투기와 9백개의 사이드와 인더 미사일, 60개의 공대공 스페로우 미사일, 50만발의 폭탄과 60개의 예비엔진 판매계약을 체결, 중국으로부터 심한 반발을 사기도 했음
- 한편 대만은 지난 80년대 IDF 전투기를 개발하고 일선에 투입하고 있으며 IDF 전투기를 외국에 판매할 가능성이 있다고 대만중앙통신(CNA)이 6월28일 보도
- CNA는 또 한국·태국등 12개국이 지난 9년동안 대만제 AT3 제트훈련기의 구입에 관한 관심을 보여 왔으나, 대만 국방부가 정책상 이유로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

□ 미 국방부 레이저무기 우주배치 보존 촉구

- 레스 에스핀 국방장관은 지난 5월1일 기자회견에서 냉전의 종식으로 「별들의 전쟁」계획이 불필요해졌다면서 앞으로 클린턴 행정부는 미사일 방위 노력의 초점을 미래의 현실적 무기에 맞출 것이라고 발표
- 레스 에스핀 미국방부장관이 스타워즈(별들의 전쟁)계획의 폐기를 공식 선언했

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이 계획이 중요한 부분인 레이저무기의 우주배치 계획 하나만은 보존하도록 의회에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 그러나 국방부는 의회에 5월7일자 보고서를 통해 레이저무기가 우주에 배치되면 이 무기는 탄도미사일이 운반하는 소형 화학폭탄이나 세균폭탄에 의한 공격 위협에 대한 세계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밝힘

□ 보잉사, 구형 B-747기 대대적 보수 착수

- Boeing사는 6월18일 세계에서 운행중인 B-747기 구형모델에 대한 전면적인 결함 보완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발표
- 보잉사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91년12월 이 기종의 중국항공 B-747 화물기 추락에 이어 지난해 10월에도 같은 기종의 엘 알 항공소속 B-747 화물기가 암스테르담의 아파트로 추락해 50명이 사망하는등 사고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취해진 것
- 보잉사는 이에따라 미연방항공국의 승인을 얻는대로 현재 운행중인 9백48대의 B-747기뿐만 아니라 이후 생산될 같은 기종에 대해 전면적인 엔진장치 결함 보완작업을 할 예정이며 이번 작업은 4개의 엔진버팀대에 부식방지용 철판장비 2개를 추가로 설치하는 작업을 포함하며 4~5년이 소요될 것임
- 세계 민간항공기 시장의 60%를 점하고 있는 보잉사는 소요비용을 밝히기를 거부하면서 수익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으나 한 전문가는 약 1억~3억달러가 들 것이라고 함

□ 보잉사, 소형 여객기 개량계획

- 보잉사는 1백10~1백50석 규모의 소형 제트여객기 부문에서 Airbus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기존 B-737S 시리즈 개량한 새로운 「B737-X」 시리즈를 개발하여 '97년부터 생산할 방침
- 보잉은 10억달러의 개발비를 투입, 엔진을 새로 도입하고 날개와 꼬리부분을 새로 디자인해 승객수와 연료효율을 개선할 계획
- 보잉의 계획은 현 737S 시리즈 가운데 승객수가 가장 많은 146석의 737-400을 1백57석의 737-400X로 바꾸는등, 보다 많은 승객을 태우고 보다 빠르게 비행할 수 있는 기종으로 대체하려는 것

□ 말, 러시아로부터 MG-29 도입

- 말레이시아는 대공 방위력 강화 방안으로 러시아로부터 MG29 18대, FA18-D 전투기 8대를 구입할 것이라고 6월29일 발표
- 나지브 툰 라자크 말레이시아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가격을 비롯한 세부사항이 연말까지 타결될 것이라면서 공식계약 후 12개월 내에 이들 MG기가 인도될 예정이며 말레이시아는 이번 결정에 따라 동남아 비공산국으로는 처음으로 MG29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

□ 인도, 항공우주기술 도입위해 관리 2명 러시아 파견

- 인도는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가능한 로켓엔진 개발의 기술적문제를 러시아와 타결키 위해 고위인사 2명을 7월4일 모스크바에 파견
- 이날 인도우주항공연구기관(ISRD)의 한 고위관리는 그동안 미국과 러시아간에

논쟁이 되어온 제3세계에 대한 러시아측의 핵·미사일 개발 기술이전 문제와 관련, 협정이 실효한지를 확인키 위해 라오 ISRD소장 등을 러시아에 파견했다고 밝힘

□ 러, 아에로플로트항공사 항공기 대체구입 시급

- 러시아의 아에로플로트항공사는 노후되어 소음이 많고 연료도 많이 드는 항공기들을 새것으로 대체하기 위해 12억달러가 필요하다고 항공사의 한 고위관계자는 말함
- 아에로플로트사의 국제 상업담당 블라디미르 티코노프국장은 러시아수송 체제 개선에 관한 회의에서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항공기들을 현대화하는 것이다. 우리는 빠른 시일내에 항공기 50대를 새것으로 대체해야 한다」며 현 보유 항공기들은 오는 '95년 부터 시행되는 소음규제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항공기 대체를 위해 12억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함
- 구소련 국영항공사였던 아에로플로트는 공산체제 붕괴후 국내선 운항을 중단하고 현재는 국제선에만 취항하고 있는데 보유 항공기 1백9대중 Airbus 제품 5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소련제임
- 티코노프국장은 「아에로플로트는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지원 없이는 어렵다」고 말하고 아에로플로트가 서방 제트기를 구입할 것인지 아니면 러시아 항공기들을 구입할 것인지는 올 연말부터 민영화를 시작할 계획이며, 처음 5년간은 정부가 50%의 지분을 확보하고 이후에는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수 있을 것이라 말함

□ 러, 헝가리 8억달러 채무 전투기로 일부 변제키로

- 헝가리는 23일 러시아로부터 MG 29기 28대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러시아에 대한 채권 17억달러 가운데 일부를 변제키로 하는 무기협정에 서명

- 헝가리는 이로써 지난 89~91년 교역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 17억달러 가운데 7억5천만달러는 전투기 22대와 훈련기 6대, 5천만달러는 지원무기 및 장비 등으로 돌려 받게 됐다고 라스즐로스젠드레이 헝가리 국방장관이 밝힘

□ 러, 구미와 항공기 사업제휴 활발

- 최근에 개최된 파리에어쇼에 러시아에서 제작된 기체에 구미제 제트엔진을 탑재한 대형항공기가 선보인 것을 비롯, 미코얀설계국이 프랑스 엔진제조업체인 스네크마와 군사용 제트연습기의 공동개발에 합의하는등 러시아-구미간 협조가 활발함
- 민간항공기 분야에선 러시아의 일류신이 미국의 P&W의 엔진을 탑재한 300석 규모의 대형여객기를 발표한 것을 비롯, 러시아의 투폴레프가 영국의 엔진메이커 롤스로이스와 공동으로 200석 규모의 여객기를 개발기로 함
- 러시아의 항공기산업은 기체설계기술에 관해서는 구미 기업으로 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엔진의 신뢰성 및 제조기술 분야에선 아직도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구미기업들은 이같은 미비점들을 보완해 가면서 낮은 개발비로 생산이 가능한 러시아기업의 이점을 살리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
- 최근 러시아항공업계는 하루에 한건씩 대형프로젝트들이 성사되고 있는데 6월 12일엔 러시아의 일류신 디자인뷰로와 P&W사가 4억달러어치의 엔진 공급계약을 체결, 6월14일엔 P&W의 모기업인 미국의 United Technology사가 러시아 페름스키에 모토르스사와 역시 엔진공급계약을 체결 함
- 파리에어쇼에서는 러시아의 투볼레프사, 美 로버트폴레밍사, 英 롤스로이스사의 3국간 합작품인 TU-204기가 선을 보여 합작의 진수를 과시
- 제너럴모터사는 러시아 모터업체와 접촉중이며 프랑스의 스네크마사는 벌써

미그기 연구소와 14건의 연구용역 계약을 성사시켜 놓고 있음

- P&W사의 PW20-37엔진과 록웰콜린즈사의 항법장치를 장착한 IL-96M민항기는 Airbus의 A-340기종과 MD의 MD-11에 필적하는 성능과 체원을 가진 것으로 평가됨
- 기종 공개 행사에 엘친대통령이 직접 참관할 만큼 주목을 받은 IL-96M은 이미 국내에 20대 해외로 부터 10대의 주문을 받아 성공적인 출발, 가격도 동종의 서구모델들보다 25%정도 싸 승산이 있다는 분석이며 3백86명을 태우고 1만3천km를 논스톱으로 달릴 수 있는 기종으로 장차 러시아를 상징하는 여객기로 자리잡을 것이 확실
- TU기를 생산하는 투볼레프연구소는 최근 로버트플레밍사, 아비아토르 올리아노프스크사(러시아)와 공동으로 브라비아라는 비행기 생산판매, 디자인, 유지보수를 맡을 합작사를 설립키로 합의
- SU-204기를 생산할 이 합작사에 플레밍사는 앞으로 1억~1억5천만달러를 투자할 계획, 이 프로젝트는 영국 롤스로이스가 RB211-535엔진을 공급할 예정이고 오는 96년부터 본격생산에 나설 계획
- 러시아 항공업계의 이같은 현대화 계획은 그동안 대공산권 수출규제로 상당한 애로를 경험해 온 것도 사실이나 최근 프랑스 에어쇼에 참관한 브라운 미상무장관이 코콤규제를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러시아 항공기 산업의 기술적 애로를 상당부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중국, 3년동안 항공산업 집중육성

- 중국은 앞으로 3년간에 걸쳐 항공산업을 집중 육성, 규모를 20%정도 증가시키고 '95년에는 총수입규모를 현재의 늘릴 계획이라고 중국항공산업(AVIC)측이 6월26일 밝힘
- 중국 당국은 오는 '95년 항공산업 총 수출고를 8억달러, 총 이익규모를 3억3천만달러로 책정하여 항공산업의 총판매수입은 '95년도에는 '92년 대비 2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함
- 중국 당국은 또 항공산업 현대화를 위한 8개년 계획을 추진, 초기 3년간 항공산업 이미지를 쇄신한 뒤 급세기 말에는 일대도약을 추진할 계획

□ 중-영 신공항회담 합의점 못찾고 끝나

- 중국과 영국은 6월4일 홍콩 신공항 건설재원 문제를 논의 하기 위한 두 나라 합동 위원회 회동을 7개월여만에 재개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며 차기 협의 일정조차 정하지 못함
- 중국측은 신공항 건설에 소요될 2백25억달러에 대한 홍콩정부의 자금조달계획이 오는 97년 홍콩의 주권이 중국에 반환되기 이전 홍콩의 국고를 고갈시킬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
- 중국 협상 대표단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신공항에 관한)이해 각서에 근거해 회담을 재개했다」고 밝히면서 「실무자 회동등 추가 접촉이 필요하다」고 덧붙임
- 신공항 프로젝트중 아직까지 합의되지 않은 주요부분은 신공항과 홍콩 중심가를 연결하는 터미널 건설을 위한 매립문제 등임

□ ANA B767를 주력기로 선정

- 일본의 전일항(ANA)은 6월29일 내년에 오사카의 신관서 국제공항이 개방된후 그들의 국제노선 주력 항공기로 중형 B-767 제트여객기를 사용할 것이며, ANA는 그들이 현재 국제노선에 약 35대의 점보 제트여객기와 객석 2백~2백20석의 보잉767기 약 50대를 취항시키고 있다고 함
- 다른 국내 및 외국 항공사들은 오사카 연안의 인공섬에 건설되고 있는 신관서 공항에 객석수가 더많은 점보 제트기를 취역시킬 것으로 예상
- ANA관계자들은 이 항공사가 국제공중교통의 수요감소를 감안한 비용절감책의 일환으로 새 오사카 공항에 B-767을 취항시키기로 결정
- B-767기의 유지비가 점보제트기 보다 싸다는 점을 지적하고 일상 운항에는 B-767이 사용되고 성수기에는 점보 제트기가 동원될 것임

□ 영국 BAe-GE사 합병 준비회담 개시

- 영국의 BAe사와 GE사가 합병을 위한 준비회담에 들어감에 따라 세계 최대의 방위산업체가 탄생될 조짐이며, 방위분야에 관해 상호 긴밀한 유대를 갖고 있는 이들 두 회사가 통합될 경우 “투기적인” 측면이 있다고 영국의 일요신문 선데이 타임스가 4일보도 .
- 이들의 합병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이나 사항 단계에 있는 방위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BAe사는 경기침체와 각국의 방위비 삭감등의 영향으로 '92년 사상 최대 규모인 12억파운드(18억2천만달러)의 적자를 냈으며 현재 회사 개편설이 돌고 있음
- 이에 반해 GE사는 매출및 현금보유 등에서 양호한 경영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두회사의 합병이 이루어질 경우 이회사의 매출액은 70억파운드(1백5억달러), 이윤은 5억5천만파운드(8억2천5백만달러) 예상

V. 참 고 자 료

□ '93년도 상반기 수입추천 및 관세감면 실적

◇ 수입추천 실적

구 분	수 입 추 천	
	신청건수	금 액(\$)
'93년 1/4분기	77	132,928,953
'93년 2/4분기	73	135,424,019
계	150	268,352,972

◇ 외국항행항공기와 그부분품제조수리용품품 국산공급곤란확인

구 분	관 세 감 면 대 상 물 품 확 인	
	신청건수	금 액(\$)
'93년 1/4분기	25	57,885,048
'93년 2/4분기	28	60,843,412
계	53	118,728,460

◇ 신청인별 그부분품제조수리용품품 국산공급곤란확인

<단위: 달러>

구 분	관 세 감 면 대 상 물 품 확 인		
	'93년 1/4분기	'93년 2/4분기	누 계
(주)대한항공	46,829,004	55,504,911	102,333,915
(주)아시아나항공	11,056,044	5,338,501	16,394,545
계	57,885,048	60,843,412	118,728,460

◇ 품목별 수입추천 실적

<단위 : US\$>

품 목 별	금		액
	'93년도 1/4분기	'93년도 2/4 분기	누 계
완 제 기	121,164,982	133,861,492	255,026,474
	고정익	121,137,188	242,274,376
	회전익	-	12,678,359
	활공기	27,794	-
	기 타	-	45,945
부 분 품	11,315,118	10,638,08	12,378,926
	기 체	11,025,231	142,797
	엔 진	263,641	65,883
	전기전자	26,246	523,161
	기 타	-	331,967
조종훈 련설비	9,635	9,205	18,840
	완성품	-	-
	부분품	9,635	9,205
우 주	139,488	251,224	390,712
	발사체	-	-
	위성체	139,488	251,224
	기 타	-	-
중 고 품	230,230	238,290	468,520
	사업용	-	-
	교육용	230,230	238,290
	기 타	-	-
기 타	69,500	-	69,500
계	132,928,953	135,424,019	268,352,972

□ 항공우주관련 공과대학 졸업예정자 현황

대학명	학과	졸업예정인원	비고
건국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40	90년 신설
공군사관학교	항공공학과	00	
부산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50	89년 신설
서울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60	
울산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0	91년 신설
인하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60	
전북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40	92년 신설
충남대학교	우주항공공학과	40	92년 신설
한국과학기술원	항공우주공학과	00	5학년제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기계공학과	130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전자공학과	80	
한국항공대학교	항공통신정보공학과	70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재료공학과	50	88년 신설
한국항공대학교	기계설계학과	50	88년 신설

계 : 670명
(공군사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제외)

VI. 알 림

□ 항공기 및 동 부분품(방위산업용 포함)의 수입추천요령

1993. 7. 1

제 1조(목적) 이 요령은 수출입별도공고 제6장 및 제7장에 의한 항공기 및 동 부분품(방위산업용 원료, 기재 포함)의 수입추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범위)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수입추천 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상의 제88류 세번으로 분류되는 품목 또는 [별표1]에 계기하는 세번에 해당하는 품목 중 제88류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할 부분품 및 원재료(중고품을 포함한다)
2.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방산물자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제생산이 위촉된 물자의 제조, 정비를 위한 원료·기재 및 부분품과 연구개발을 위한 시험분석용 시설기재 및 견품과 기타 경찰작전용 물자 및 군용에만 공하는 물자의 제조, 정비를 위한 원료, 기재 및 부분품으로서 항공기 및 동 부분품에 해당하는 물품(중고품을 포함한다)

제 3조(신청자격)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추천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1.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생산사업의 신고를 한 자
2.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검사업무를 위탁 받은 자

3. 항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면허를 득한 자
4.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로 지정된 자
5. 기타 본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 4조(신청서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본회 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수입승인(변경)신청서 4부
2.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1부
3. 제3조의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성능보장에 관한 서류 및 제작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중고품의 경우에 한한다) 1부
5. 기타 본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 5조(수입추천 판단기준) ① 다음 각호의 1을 기준으로 국산공급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수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수입추천한다. 다만, 완제기(완제기 조립용 부품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및 교통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사전협의하여 당해 물품의 수입추천 여부를 판단한다.

1. 특허권 또는 기타의 기술에 관한 권리
2.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과 유사 또는 대등한 성질의 국산품 유무 및 유사 또는 대등한 성질의 국산품의 다음 사항
 - 가. 정밀도
 - 나. 사양 및 성능
 - 다. 수량(경제단위 이하 등)
 - 라. 납기(방산물자 적기조달 등)
 - 마. 가격
 - 바. 안전도
3. 중고품의 경우 도입하고자 하는 품목의 성능보장 여부
4. 기타 본회 회장이 국산공급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입추천을 받은 방위산업용품은 본회의 “항공기

및 그 부분품 생산용 원료, 기재에 대한 국산공급근란확인 요령”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 6조(처리기간) ①동 수입추천 업무의 처리기간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내외 전문기관(전문가 포함)의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
2. 서류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3.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
4.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제 7조(보안관리) 방위산업용 물품의 수입추천 업무에 따른 인원, 시설 및 문서 등에 관한 조치는 국방부의 “방위산업 보안업무 시행규칙”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 8조(항공기수입심의회 설치) 동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별도의 “항공기수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 9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수입추천 여부를 심의, 결정한다.

1. 중고품목
2. 기타 본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제10조(심의회의 구성 등)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 및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본회 상근부회장이 되며, 간사는 본회 수입추천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심의회회의 위원은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 중에서 본회 회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11조(추천서의 유효기간) 동 수입추천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0일로 한다.

제12조(수수료) 동 수입추천에 대한 수수료는 본회 회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13조(업무처리실적보고) 본회 회장은 매 분기별로 수입추천 실적을 상공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세부기준) 이 요령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회 회장이 정한다.

제15조(업무처리장소) 동 수입추천 업무의 처리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91-6 대지빌딩, (02)553-5681)에서 수행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1993년 7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수입추천을 받은 물품은 이 요령에 의하여 수입추천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이 요령 이전의 공고는 폐지한다.

[별표1]

HS88류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할 부분품 및 원재료

(1)3604	(2)3917	(3)3926	(4)4009	(5)4010	(6)4011
(7)4012	(8)4016	(9)4412	(10)6307	(11)7007	(12)7014
(13)7019	(14)7215	(15)7307	(16)7311	(17)7312	(18)7315
(19)7318	(20)7319	(21)7320	(22)7326	(23)7604	(24)7606
(25)7608	(26)7609	(27)7611	(28)7614	(29)7616	(30)8301
(31)8302	(32)8307	(33)8405	(34)8411	(35)8413	(36)8414
(37)8418	(38)8419	(39)8421	(40)8424	(41)8471	(42)8473
(43)8479	(44)8481	(45)8482	(46)8483	(47)8484	(48)8485
(49)8501	(50)8502	(51)8503	(52)8505	(53)8506	(54)8507
(55)8511	(56)8516	(57)8517	(58)8518	(59)8519	(60)8520
(61)8521	(62)8522	(63)8523	(64)8525	(65)8526	(66)8527
(67)8529	(68)8531	(69)8532	(70)8533	(71)8534	(72)8535
(73)8536	(74)8537	(75)8538	(76)8539	(77)8540	(78)8541
(79)8542	(80)8543	(81)8544	(82)8545	(83)8546	(84)8547
(85)8548	(86)8906	(87)9014	(88)9019	(89)9020	(90)9025
(91)9026	(92)9028	(93)9029	(94)9032	(95)9033	(96)9104
(97)9106	(98)9110	(99)9114	(100)9401	(101)9404	(102)9405
(103)8504					

□ 항공기 및 그 부분품 생산용 원료, 기재에 대한 국산공급
 곤란 확인요령 (1993. 7. 1)

제 1조(목적) 이 요령은 관세법 28조의3 제1항 및 제28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항공기와 그 부분품(방위산업용품 포함)의 제조, 수리 및 정비에 사용할 부
 부분품 및 원재료 등의 국산공급곤란확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범위)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국
 산공급곤란 확인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 항공기 및 그 부분품 생산용 원료, 기재로서 관세법 제28조의 4 제1항에 의
 한 재부부고시 물품
2. 항공기 및 그 부분품 생산용 원료, 기재로서 방위산업제품을 제조 가공·수리
 또는 정비하기 위한 부분품 및 원재료
3. 항공기 및 그 부분품 생산용 원료, 기재로서 방위산업제품의 연구개발을 위
 한 시험분석용품 및 견품

제 3조(신청자격)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물품확인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1.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생산사업의 신고를 한 자
2.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검사업무를 위탁 받는 자
3. 항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면허를 득한 자
4.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로 지정된 자
5. 기타 본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 4조(신청서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산공급곤란확인을 받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본회 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국산공급곤란 확인(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부

2. 품목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 각1부
3. 기타 본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 5조(국산공급 곤란여부 및 확인판단기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산공급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국산공급곤란대상 물품으로 확인할 수 있다.

1. 특허권 또는 기타의 기술에 관한 권리와 관련되어 국내생산이 곤란한 경우
2.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과 유사 또는 대등한 성질의 국산품이 없거나 국내생산 가능하다 하더라도 다음 사항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 가. 정밀도
 - 나. 사양 및 성능
 - 다. 수량(경제단위 이하 등)
 - 라. 납기(방산물자 적기조변 등)
 - 마. 가격
 - 바. 안전도
3. 중고품의 경우는 도입하고자 하는 품목의 성능이 보장되어야 하며, 당해 품목의 사용년수는 내용년수의 1/2미만이어야 한다.
4. 기타 본회 회장이 국산공급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②본회의 “항공기 및 동부분품(방위산업용 포함)의 수입추천요령”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추천을 받은 제2조 2호, 3호의 물품은 이 요령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국산공급곤란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 6조(처리기간) ①동 국산공급곤란확인 업무의 처리기간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내외 전문기관(전문가 포함)의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

2. 서류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3.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
4.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제 7조(보안관리) 방위산업용 물품의 국산공급곤란확인 업무에 따른 인원, 시설 및 문서 등에 관한 조치는 국방부의 “방위산업 보안업무 시행규칙”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 8조(항공기국산화심의회 설치) 동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별도의 “항공기국산화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 9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본회의 판단이 곤란하거나 기타 본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한 국산공급곤란 여부를 심의, 결정한다.

제10조(심의회의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 및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본회 상근부회장이 되며, 간사는 본회 수입추천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 중에서 본회 회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11조(확인서의 유효기간) 동 국산공급곤란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제2조 1호의 물품인 경우 1년으로 하고, 제2조 2호, 3호의 물품인 경우 2년으로 하며 이 경우 1년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기확인 유효기간 경과이전에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한 경우에 한한다.

제12조(수수료) 동 국산공급곤란확인 수수료는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본회 회장이 정한다.

제13조(업무처리실적보고) 본회 회장은 매 분기별로 국산공급곤란확인 실적을 상공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세부기준) 이 요령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회 회장이 정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1993년 7월1일로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국산공급곤란확인을 받은 물품은 이 요령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국산공급곤란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전경련, '최고경영자 유럽지역 경영연수' 예정

○전국경제인연합회 國際經營院에서는 최고경영자들로 하여금 국제화·개방화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경영기법, 경영혁신사례를 해외경제현장에서 습득케 하고 국제적 감각을 배양케 하기 위하여 '최고경영자 유럽지역경영연수'를 다음과 같이 실시함

- 다 음 -

1. 연구시기: 93. 10. 10 ~ 10. 24
2. 연수지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독일
3. 연수대상: 기업(단체)의 최고경영자 및 임원
4. 연수경비: 520만원
5. 신청마감: 93. 8. 14
6. 문 의: 780-0821 (376)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의견이나 신개발품 또는 주요 행사등 본 동향지에 기고할 내용이 있으시면 협회 기획과 편집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553-5681/2)